



4월2일
금요일

보도자료

생명의 땅 으뜸 전남
Land of Life, Best Jeonnam

| | | | | | | | |
|----|--------|----|-----|----|-----|---|----------|
| 실국 | 농식품유통과 | 과장 | 강종철 | 팀장 | 서동순 | ☎ | 286-6420 |
|----|--------|----|-----|----|-----|---|----------|

전남도 '우수 로컬푸드 직매장' 2개소 농식품부 인증 획득

- 전국 3개소 중 전남 2개소, 화순농협, 고서농협 로컬푸드 직매장 우수 인증 -

전남도는 농림축산식품부의 '2020년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 인증제'에서 화순농협 로컬푸드 직매장과 고서농협 로컬푸드 직매장이 우수 로컬푸드 직매장 인증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 인증제는 정부가 농산물 직거래에 대한 모범적인 기준을 설정하고, 이에 부합하는 사업장에 인증을 부여함으로써 직거래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 확보를 위해 2017년 도입됐다.

농식품부는 인증을 받은 사업장에 인증 현판과 함께 직매장 홍보·마케팅비, 참여 농업인 교육, 소비자와 소통 활동 등에 필요한 예산(국비 10백만원)을 지원한다.

이번 우수 직매장 인증을 획득한 화순농협 로컬푸드 직매장은 출하농가의 80% 이상 중소농이 참여하고 있고, 로컬푸드 가공센터 운영으로 직접 수매부터 가공·판매·홍보까지 하고 있어 생산자 관리와 지역농산물 취급 분야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또한, 전남도내 최초('13년 9월 개장), 최고 매출('20년 매출 111억 원) 직매장인 담양 고서농협 로컬푸드 직매장은 농산물품질관리원과 로컬푸드 안전성 검사 협력체계를 구축해 위반농가 발생 시 강력제제 조치를 통해 소비자 신뢰를 높이고 있어 안전성 관리 분야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강종철 전남도 농식품유통과장은 “우수 로컬푸드 직매장 확대를 위해 로컬푸드 분야 예산 지원과 직매장 운영주체 교육 등을 통해 인증제도 확산에 노력하겠다”며, 더불어, “소비자가 만족할 수 있는 품질과 안전성 강화에도 힘써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남도내 우수 직거래 사업장은 지난해까지 3개소로 '17년 나주로컬푸드(빛가람점), '18년 순천로컬푸드(순천만국가정원점), '19년 순천로컬푸드(조례호수공원점)에서 인증을 획득했다.